

지상에 나뉜 2층 극락



▷대부분의 중층 불전들이 임진왜란때 불타버려 단층으로 재건됐지만 무량사 극락전은 거대한 불상에 어울리게 2층으로 중창됐다.

무량사 극락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신라시대 경주에는 '열 집에 한 집이 절이었으며, 높이 솟은 탑과 불전들이 마치 기러기 떼와 같았다'고 하고, 고려시대 개성에도 "두세 집 건너 하나는 2-3층의 건물이었다"고 했다. 왜 한국에는 다층 건물들이 없고 모두 납작한 집들만 있는지는 불교에 대한 대담이다.

신라와 고려시대, 심지어는 조선 초기 까지만 해도 도시는 물론이요, 산간 벽지에도 2-3층의 높은 대형 건물과 불전들이 흔하게 존재했다. 황룡사 9층목탑은 80여m로 추정되며, 남이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물이었을 정도로, 높이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구 가운데 3층 불전은 금산사 미륵전이 유일하며, 2층 불전 역시 남북한 통틀어 5동에 불과하다. 그나마 법주사 대웅보전,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 등 충청과 호남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에는 평남 평성의 안국사 대웅전이 아직까지 보고된 유일한 예다. 굳이 높은 건물을 더 찾는다면, 3층목탑이었던 쌍봉사 대웅전과 5층목탑인 법주사 팔상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이 정도로 적고, 충청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가? 임진왜란은 사상 최대의 국난이었음은 물론이지만, 불교계로서도 최악의 환란이었다. 전국 거의 모든 사찰들이 왜적의 방화로 타버렸고, 수많은 스님들이 도살되었다. 그 원인은 5천이 넘는 승병들의 뛰어난 활약과 전과 때문이었다.

7.2m 거대한 불상 봉안

상승감·장엄미 빼어나

계는 물론 그 주요 시주층인 백성들에게는 사찰 재건의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수도 서울이 전란 전의 상태로 복구되는 데 1세기가 걸릴 정도로 피폐한 재건이었다. 아울러 지방의 이름없는 사람들이야 오죽했을까?

부여 무량사 극락전도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이를 중창한 때는 전쟁이 끝나고 80년이 지난 1679년이었다. 이 시기가 되어야 겨우 여력이 생겼던 까닭이다. 단층 건물에 비해 중층 건물은 규모가 커야 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그만큼 공사비도 급증한다. 때문에 대부분 중층 불전들은 일란 후에 단층으로 재건됐다. 해인사 대적광전도 원래는 2층 불전이었지만, 단층으로 간략히 재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보림사 대웅전은 아예 폐허로 남았다가 최근에야 재건되었다. 무량사 극락전이 원래의 2층 모습으로 중창된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실이었다.

불전 건물은 그 자체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묘법연화경〉에는 불전을 장엄하게 하고, 불탑을 만드는 것이 최대 공덕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 설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허약하다면 불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었다.

중층 불전이 만들어진 이유는 또 있다. 집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크기 때문이다. 보통 큰 부처님을 장육상이라 부른다. 장육상이란 높이가 16척(4.8m)인 불상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불상을 지칭한다. 불대좌까지 합하면 장육상의 높이는 6m에 달하며, 이런 부처님을 모시자면 건물의 층고가 최소한 8m는 되어야 한다. 단층건물로는 불가능한 높이이다. 무량사 극락전 부처님은 7.2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극락전 건물은 당연히 2층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면 4칸, 측면 4칸의 당당한 외관을 가지게 된다.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입상은 높이 10m가 넘기 때문에 3층 건물이 되었다.

결코기에는 2층이지만, 안은 위아래가 터진 높고 시원한 공간을 이룬다. 위층의 벽면은 모두 창문을 달아서 천창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부처님의 인자한 얼굴을 비춘다. 그 정도의 부처님께 꼭 맞는 장엄한 건축공간이다.

무량사 극락전은 여러 중층불전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갖는다. 1층의 높이에 비해 2층의 층고가 낮게 만들어졌다. 얼핏 보면, 1층 지붕 위에 곧바로 2층 지붕이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1층 처마밑의 공포보다 2층의 공포가 더욱 크고 조밀하다. 따라서 극락전은 높이 솟아 오르는 상승감으로 웅장한 느낌을 갖게 된다. 무량사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대지에 자리잡았다. 극락전도 평지에 세워졌고 기단도 낮다.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한 대지에 높이 솟은 극락전의 수직성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마치 지상에 재현된 극락세계 처럼.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 문양

인/물/

불교 경전속에는 불보살을 비롯해 선재동자, 나한, 십대제자 등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우리 전통 회화와 조각, 건축의 주인공으로, 또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으로 표현된다. 불상과 보살상, 동자상 등이 주로 조각이나 불화에서 표현되는 비해, 비천상과 주악상, 신장상 등은 사찰의 벽화나 탕화, 석탑, 범종 등 불교건축과 조형물에 장식 문양으로 새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인물문양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 조형화된 것들이다.

인물문양을 시작으로 불교건축과 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앞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

■비천상

비천은 불교의 천국(天國)에서 허공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는 천인의 일종이다.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허공에 떠 있는 비천상은 도교 설화 속에 등장하는 선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비천의 조상(甞上)은 원래 오늘날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매력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 연화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 수호신"

비천상 허공날며 부처님 찬탄 주악상 악기 타며 불보살 장엄 신장상 탑·부도·탱화에 등장

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건달바(乾闥婆), 긴나라(緊那羅)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석등, 부도, 불단, 또는 단청의 별치화(別枝畫) 등에도 나타난다.

■주악상

비천상과 마찬가지로 천인을 형상화한 주악인불상은 사리기와 범종, 탑과 부도를 비롯해 사찰 곳곳에 나타난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과 범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부처님과 고승대덕에 대한 정경과 공양, 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한 실상사 백담암의 삼층석탑의 주악상은 두팔을 갖춘 보살의 모습으로 초층 몸돌 각면에 보살입상과 신장상을 2구씩 양각했다. 2층 몸돌 각면에 주악상 2구씩을, 3층 몸돌 각면에 천인조상 1구씩을 양각했다. 통도사 용화전 공포벽의 주악상은 구름위에서 피리를 연주하는 종자의 모습으로 표현돼 있으며, 화산 쌍봉사 철감선사탑에는 서민 복장의 주악인불상이 조각돼 있다.

■신장상

신장의 종류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화엄신종을 비롯, 〈법화경〉의 영신화상 수호신상, 〈인왕호국만아경〉(대반야경)에 나타나는 호국 선신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천, 재석천, 인왕, 사천왕, 관무중, 십이신장 등이 널리 조성되어 왔다. 불탑이나 부도에 조각된 경우는 그 안에 봉안된 사리를 공호하는 뜻이며, 사경의 변상도로 그려진 경우는 가람수호의 의미를 갖는 등 주로 호법의 의미를 지닌다.

이은지 기자(ejee@buddhania.com)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주악상의 탁본.



▷통도사 금강계단 석등의 인물상.



▷통도사 용화전 공포벽의 주악상. 동 자기 구름위에서 피리를 연주하고 있다.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MAHAMALL

16나한단주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고급나무 케이스 포함)

설악 인진숙엑기스



- 상품소개
 1. 설악인진숙엑기스는 강원도 산악에서 서식하는 인진숙을 선별하여 엑기스를 추출한 제품입니다. 청정지역의 인진숙으로 추출한 원액에 구기자, 당귀, 작약, 대추, 황기엑스, 숙지황등을 넣어 엑기스를 만들어 먹기 좋게 포장하였습니다.
 2. 인진숙엑기스는
 - 강원도 설악산 일대 인진숙으로 만듭니다.
 - 한약재료를 첨가하여 맛이 순하고 좋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인진숙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황달이나 간염을 치료할 때 그리고 부인들의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 되어 온 식품입니다.
 2. 근래에 외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 그 약리 성분이 밝혀지고 있으며 97년에는 강원대 황순희 교수와 한림대 정차권 교수팀에서 인진숙이 항암기능 효과가 있음을 밝혀기도 했습니다.

설악 솔잎엑기스



- 상품소개
 1. 설악 솔잎 엑기스는 강원도 설악산 일대의 솔잎을 선별하여 [도식물환경 연구원 검사] 엑기스를 추출한 제품입니다.
 2. 청정지역의 솔잎만으로 추출한 원액에 당귀, 숙지황, 무총, 갈근, 대추등을 넣어 만든 건강식품으로 신장을 많이 쓰는 직장인이나 공부하는 학생,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3. 설악 솔잎 엑기스는
 - 강원도 설악산 일대 솔잎으로 만듭니다.
 - 한약재료가 섞여 맛이 순하고 좋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솔잎은 산인들의 식재료로 할 만큼,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우리민족과 친숙한 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약중의 삼각이라고 할만큼 좋은 재료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기를 돕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2. 기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집중이 되지않거나, 체지방 때문에 열려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장한 상품입니다.

속초 다시마엑기스



- 상품소개
 1. 속초다시마엑기스는 강원도 최북단 통일전망대 부근 해역에서 해녀와 갈수부들이 채취한 다시마로만 만듭니다.
 2. 다시마의 비취하는 맛을 없애고 먹기 좋게 만들어 맛있게 카다모은 분말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마 원액 90%의 함량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 속초다시마 엑기스는
 - 청정 동해해역에서 자라는 순수 자연산 다시마로만 만듭니다.
 - 맛이 역하지 않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 다시마는 오모드 갈수, 칼륨등 4종이나 되는 미네랄을 갖고 있으며 '착한' 것을 흡수하고 용이리진 것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산성식품을 알칼리성 식품으로 바꾸어주어, 다량 함유는 성분이 있어서대장의 운동을 도와주고 음식물을 흡수하고 장의 운동을 도와 숙변을 용탈시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포은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포은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필링, 취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절(35.5°C~4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필링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쁜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도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빛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본 상품 - 마하몰 입점 기념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 : 105,000원 특별합인가 : 84,000원